

지역 매 아리



고창군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에서 1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창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했으며, 조규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명절 성수품을 구입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조규철 의장은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상인과 주민 여러분 모두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추석연휴 환경오염예방 특별단속

정읍시(시장 유진섭)에서는 추석연휴를 맞아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에 나선다.

관리·감독이 취약한 연휴기간 중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추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번 감시활동은 추석 연휴기간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게 된다.

추석 연휴 전에는 배출업소 등에 대해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조치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특별점검반 3개반(6명)을 편성하여 도축·도계장 등 폐수 다량배출업소,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축사시설 등 취약업소 중심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연휴 중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환경오염 신고창구(신고번호 128) 24시간 운영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주변 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연휴 후에는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관리시설 가동중단 등 환경관리영세·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정상가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도권 지역민들에 '찬사'

부안군립농악단, 경기 고양 알미문화축제장 식전공연

경기도 고양시 알미문화축제장에 부안군 군립농악단이 축제 식전공연을 펼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 15일 13번째로 열리는 알미문화축제는 경기 북부지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축제로서 서울시민들

많이 방문하는 축제장에 부안 군립농악단은 12시부터 길놀이를 시작으로 오채질굿, 질굿, 양산도, 오방진굿 및 호호굿 등 전라남도농악을 고양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뜨거운 관객반응과 수준 높은 농악 공연에 반한 고양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12일에 열리는 삼송 솔바람 축제 및 내년도 알미 문화축제에 부안군립농악단공연을 초청받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호남 우도 농악을 쉽게 접할 수 없을뿐더러 부안 군립농악단은 군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창단된 실력 있는 농악단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호응도가 더욱 컸다는 평가다.

부안군에서는 삼송 솔바람 축제에도 참가하여 다시 한번 경기도민에게 부안 농악을 알리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호남우도농악은 전라도 서부지역의 농악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북의 경우 부안, 익산, 김제, 고창 및 정읍 지역에서 전해 오던 곳으로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던 삶의 총체적인 문화양식이었던 농부들의 애환이 담긴 놀이마당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경기도 고양시 알미문화축제장에 부안군 군립농악단이 축제 식전공연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가 최근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안·고창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부안해경, 사회복지시설 방문 사랑나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가 최근 어려운 이웃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부안·고창지역 사회복지시설 2곳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나눔을 실천했다.

이날 부안 해경은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전통시장 방문으로 서민경제 안정도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려고 솔선수범을 보였다.

이번 복지시설 방문은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기부 행렬이 집중되지 않

은 곳을 추천받아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훈훈한 명절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로, 해양경찰의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부안해양경찰서 임재수 서장은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을 전달해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이어 나가고, 전통시장 방문으로 조금이라도 지역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느린 걸음 걷는 가을여행... 구절초 테마공원

음력 9월 9일이 되면 9마디가 된다하여 구절초라 불리는 꽃 구절초!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에 오면, 이러한 구절초가 야트막한 언덕 위 소나무 숲 사이로 동산 하나를 하얗게 덮어버리는 장관을 볼 수 있다.

옥정호 상류인 추령천이 휘감아도는 소나무동산에서 펼쳐지는 구절초 동산은 대한민국 10월의 대표 축제 5선 선정(한국관광공사, 2012년), 국내 여행지 베스트 그곳 선정(한국관광공사, 2014년), 전국 지자체 상징 꽃 선정(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등 전국에서 여행명소로 자리 잡았다.

구절초 동산 12만㎡ 면적에 솔솔 밀 구절초가 지천이다. 솔향(松香)을 맡으며 구절초 꽃밭을 느긋하게 산책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이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들려야 할 이곳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구절초꽃축제가 열린다.

10월 6일부터 14일까지 펼쳐지는 구절초꽃축제는 꽃밭음악회와 버스킹공연, 전통한옥마당 연주회 등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에서 가을이 즐기는 방문객들.

의 공연이 마련되고, 체험행사 그리고 구절초 족욕체험, 구절초 꽃길 별빛여행, 하늘에서 본 구절초 세상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천상의 화원 전광대, 유색버 아트경관 전망대, 구절초포, 망경대, 능고영 화활영명소, 돌담길, 실개천, 코스모스, 해바라기 경관지를 볼 수 있다. 특히 유색 버 아트경관은 매년 다른 장면을 연출하는데, 올해 테마는 영화 '공황' 리브스토리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이다.

이러한 구절초 동산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ktx 정착역인 정읍역에서 산내면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50여분을 가는 방법, 자동차로 태인IC를 통과하여 태인-칠보방면으로 20여분 가는 방법, 자동차로 정읍IC를 통과하여 북면-칠보방면으로 30여분 가는 방법이 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을에는 솔솔 구절초에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정읍=김대환 기자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 채택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안건을 심사하여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정읍시내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추가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위

해 보류했다.

또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했다.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해마다 폭염이 점점 심해지고 장기화 되는 상황으로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경운 의원 대표발의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제236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옥정호 · 도원천 상수원 수질보전 협업회의

정읍시는 지난 14일 옥정호와 도원천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행진 협업회의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업회의는 김인태 정읍시 부시장의 주제로 관계부서인 국단소장을 비롯하여 과소장, 팀장, 담당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옥정호와 도원천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에 따른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통한 상수원 관리에 대해 논의 하는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 부시장은 "상수원관리 협업 T/F 팀 운영을 통해 부서 간 지속적인 업무 공유와 협업을 우리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GIFT SET 1E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E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E | 750ml 1ea/12%

GIFT SET 4E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E | 375ml 5ea/13%

GIFT SET 6E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8900
www.gangsanwine.com